

## 무엇을 위해 도장을 깨는가

2018년 세대 토론의 장, tvN <토론대첩-도장깨기>

오현경

시대를 향한 응답인가 혹은 또 다른 자본의 산물인가

“명절 때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 어보았을 조언이다. 의미야 많이 퇴색되었다지만 어쨌든 가족과 친척 들이 하하 호호 모여 노는 명절이 아닌가. 여기에 정치 이슈는 판을 깨 는 악마로 꽤 오래 자리 잡았다. 그 지난한 싸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 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친 세대와 독재에 맞 선 세대, 경제성장을 목격해온 세대와 민주화를 이룬 세대, IMF를 이겨낸 세대와 혹독한 경쟁 사회를 겪은 세대가 한 밥상에서 밥을 무난히 먹기 도 새삼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치에 대한 논쟁은 사회에서 은연 중 금기시되어왔다. 정치 이슈를 꺼내는 사람은 불편하고 눈치 없는 캐 릭터로 자리 잡곤 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나 현재 20

대를 맞은 세대만큼 또 억울한 이들이 없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밖에 나가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런데 크고 나니 왜 직접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모순된 잔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 결국 묵묵히 치열한 경쟁 사회를 답습하던 이들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름 아닌 촛불정국이었다. 정치관을 향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확히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싶다. 청년들 사이에서 '말해도 돼. 이제 우리도 바깥에서 정치 좀 말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그리고 2018년, tvN에서 <토론대첩-도장깨기>(이하 <토론대첩>)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토론대첩>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대변인으로 등장하는 패널들이 토론으로 맞붙어 승부를 가르는 프로그램이었다. 다른 토론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가들끼리, 혹은 대학생들끼리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토론대첩>은 20대의 패널들이 기성세대 가운데 논객으로 유명한 이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포맷이었다. 토론의 안건 또한 흥미로웠다. 청년실업, 군 복무 단축,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통일, 결혼, 여대 폐지, 최저임금, 정규직화 등 지금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들이었다. 듣기만 해도 반가웠다. 하지만 그제 시대에 응답한 변화의 장일지, 사회의 간절한 목소리마저 자본적으로 재구축한 텔레비전 상품일지는 지켜볼 문제였다. 이후 <토론대첩>은 방영 당시 1%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속해서 SNS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오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동시에 비판의 여론이 일었다.

## 첫 번째 문제, 세대를 대변하기에는

〈토론대첩〉의 1부 오프닝은 흥미로웠다. 프로그램은 약 3700년 전부터 역사상 세대 간의 갈등은 늘 존재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버릇없단 잔 소리를 듣고 자란 젊은이들이 또다시 기성세대가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서 말이다. 제작진은 재밌는 오프닝과 함께 세대 간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제작진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출연자를 모색했다. 기준은 1988년부터 1999년생이었고 토론 전문가들이 모여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총 12명의 지원자가 뽑혔다. 훈련된 방송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스템에서 정제되어 있지 않고 날것 자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은 반가운 존재였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아쉬워했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20대를 대변할 수 있는가’였다. 선발된 출연자들이 거의 인(in) 서울권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었고 연령대가 주로 20대 초반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론대첩〉은 이 젊은 출연자들을 하수, 기성세대 논객들을 고수로 이름 붙였다.

고수 캐스팅도 논란이었다. 먼저 유명 학원의 스타 강사인 최진기 강사가 캐스팅되었다.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학원의 강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가 방송 하차를 선언하고 몇몇 교육 기업의 댓글 아르바이트 의혹이 일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기도 했다. 전여옥 작가 캐스팅은 더 큰 반발이 있었다. 과거 그녀의 저서 『일본은 없다』는 표절 논란이 있었고 이에 법적으로 피해 작가의 진실성이 인정된 바 있었다. 이준석 패널 역시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보수 정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인물이었기에 우려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보 논객으로 유명

한 진중권 교수가 캐스팅되었다. 교수들이 모두 프로그램을 이슈화할 수 있는 유명인임은 분명했지만 시기적절한 캐스팅이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법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촬영을 강행했다. “이준석 편”에서는 “보수의 미래”라는 주제를 내걸기도 했다. 논란에 대한 정면 승부였다.

화려한 교수 캐스팅에 하수들은 열의를 가지고 도전했고 제작진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토론 전문가들이 붙어 실전 토론 전까지 하수들을 교육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하수들은 실전에서 “최진기 편”, “전여옥 편”, “이준석 편” 모두 고전했고 마지막 “진중권 편”에서야 아슬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수들의 연령대와 직업군이 대다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본인의 경험과 사회문제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데 한계가 느껴졌다. 하수들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청년들의 애석한 하소연처럼 그러졌다. 교수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일 뿐 다시 하수들에게 “그래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전여옥 작가가 자신의 취직 일화와 결혼 경험으로 주장에 힘을 실을 때에는 연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다. 과연 어떤 직업과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과 기성세대를 나눌 수 있는가? 하수 패널 구성을 향해 핵심적인 질문이 날카롭게 오갔다.

이어 시청자들은 하수들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없다며 SNS에 올라온 하이라이트 영상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인이 느꼈을 때 부족해 보이는 논지를 덧붙여 채웠고 2차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 이 댓글 토론의 장이 ‘하수들이 답답해서’ 탄생했다면 제작 취지와 상당히 어긋난 셈이다. <토론대첩>은 길게 촬영된 분량이 1시간 내외로 편집되면서 실질적인 토론 내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보니 교수가 하수의 질문으로 수업을 하는 모양새 같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연달아 나왔다. 물론 토론은 많이 말하기 게임이 아니다. 상대방의 주

장과 논리를 경청하는 자세는 기본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답답하게 느꼈던 까닭은 편집의 문제였다. 양측 토론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판정단의 리액션과 토론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하수들의 대화 장면이 비춰지며 토론의 맥락이 끊어졌다. 맥락이 단절되면서 다시 화면에 위치한 토론자들은 주장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느껴졌다. 하수들은 시청자들에게 고수만큼의 신뢰와 친근감을 가지지 못한 위치에 있다. 편집에서 이들의 논리를 전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내용이 많이 편집된 하수들의 주장은 상당히 부실해 보였다.

궁극적으로 출연자들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방식이 아쉬웠다. <토론대첩>은 사회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언어를 거둬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전여옥 작가를 토론계의 ‘대모’, ‘엄마’ 같은 미소 등의 소개와 자막으로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12명의 하수 중에 고작 두 명밖에 되지 않는 여성 출연자들을 ‘여전사’로 묘사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이 논의되는 이 시기에 명백히 사회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었다. 다른 남성 출연자들을 ‘대부’, ‘남전사’와 같은 언어로 묘사하지 않음과 분명하게 비교되었다. 하수 출연자들의 이름 자막 옆으로 출신 대학교를 함께 표기해둔 것도 같은 아쉬움이다. 학벌에 관련된 비리와 차별이 매년 이야기되는 한국 사회다. 이미 모종의 절차를 거쳐 하수들이 발탁되는 과정을 1부에서 지켜본 시청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굳이 하수들의 출신 대학을 강조하는 연출은 다시 한번 ‘대변’과 ‘이해’의 맥락에서 어긋났다.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을 선발하고 전공, 작가, 회사원 등으로 직업군을 설명했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았을까.

## 두 번째 문제, 승부 그리고 승패가 걸린 토론

〈토론대첩〉에서는 토론이 마무리되면 약 30~40명으로 구성된 판정단이 투표를 진행하고 이 투표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했다. 시작부터 드렁큰타이거의 「몬스터」가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발라버려”라는 가사가 고수와 하수들의 이미지 사이로 울려 퍼졌다.

고수와 친하거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사부’라는 포지션으로 등장해 하수들에게 특강을 했다. 내용은 이러하다. ‘고수들이 취하는 견해의 근간을 문제 삼아라’, ‘TV 토론에서는 말로 다 듣고 표현할 수 없으니 표정 등으로 심리를 드러내라’, ‘방송형 보수가 아니냐고 공격해라’, ‘말이 빨라지면 당황했다는 증거다’, ‘불리해지면 화제를 전환해라’. 하수들은 다르게 사고하고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 심지어 사부들은 실전 토론에서 고수들에게 말려드는 하수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더니 쉬는 시간을 틈타 토론 방향까지 잡아주었다. 고수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입장에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넘어가고 제작진의 표현처럼 ‘독사’같이 하수들의 주장을 물어뜯었다. 양쪽 모두 승부가 걸려 있으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나 새로운 시각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있었던 논의가 반복될 뿐이었다. 〈토론대첩〉은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안건으로 삼지 않았던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이기느냐’인지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토론 장면 사이사이로 고수와 하수들의 인터뷰 장면이 삽입되었다. 여기서 고수들은 그들 또한 토론 중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어떤 이들은 늘 청년들의 편에 서다가 그 반대 위치에 서러니 힘이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왜 그

들은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일까. 현실에서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불만을 가진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성세대는 억울해한다. 앞선 세대로서 길을 개척하고 때론 멘토로서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의 표시는커녕 왜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따름이다.

문제는 한 사회라는 게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다시 과정으로, 과정은 다시 결과로 무한히 순환한다. 터져 나오는 이슈들은 이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다. 결국 기성세대도, 청년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다. 그들에게 싸움을 붙여 승부라는 끝을 보게 하는 방식은 다시 문제를 각자의 관점으로 돌릴 뿐이다. 함께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택지는 목록에 없다. 싸우지 말란 뜻이 아니다. 책임은 인정하고 입장은 이해하고 방안은 고민하면서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갈 수는 없었는지 묻는 것이다. 승패를 가르는 과정은 어쨌든 서로를 더 대척점으로 몰아세우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논하는 주제는 보는 대다수에겐 삶이 걸린 문제일 텐데. 승과 패, 옳은 것과 아닌 것으로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

## 세 번째 문제, 여기에서 객관과 공정 가능한가

어찌 되었든 승부가 있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토론대첩> 제작진은 그 기준을 판정단으로 정했다. 20대에서 60대 사이로 구

성된 판정단이 4~5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토론을 지켜보고 고수와 하수 중 한쪽에게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토론은 크게 3~4개의 파트로 구성된 시사 토론과 1개의 세대 토론 파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파트마다 투표가 진행되었다.

토론에서 제시된 안건들은 이미 사회에서 화제가 되어 수없이 논의된 사안들이었다. 판정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이 각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투표 후 판정단의 인터뷰가 나올 때 대다수가 ‘누가 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는지’를 중요시했다고 증언했다. ‘안건을 얼마나 더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논했느냐’보다 말하는 능력이 투표의 기준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자의 입장에서도 문제에 대해 남다른 시각을 꺼내기 쉽지 않다. 특히 사회 분위기적으로 허락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왔던 이야기일수록 불가능하다. 결국 있었던 논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이 토론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던가. 시청자들은 이미 타 경쟁 프로그램에서 일명 ‘악마의 편집’을 무수히 겪어왔다. 그들은 이미 방송의 경쟁 구도에서 편집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다. <토론대첩>은 1시간이 채 안 되는 구성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수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제작진이 촬영 장소로 이동해서 세트를 설치하고 고수들이 등장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마저 3~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편집 템포가 매우 빠를 수밖에 없다. 투표 장면 역시 빠르게 지나갔고 여기에서 거수하는 판정단을 담은 풀샷을 찾아보기도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예민한 문제를 사안으로 다루며 승패까지 정하는 포맷이 아닌가. 시청자들은 판정단의 공정성을 넘어 방송의 본질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수들은 사전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토론은 오히려 1 대 다수로 불기가 더 쉽다고, 이런 방식의 토론은 그냥 학살이라고. 프로그램은 이미 하수들에게 불리한 구도의 게임이란 점을 시작 전부터 밝혔다. 다수가 한 팀을 이루어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주장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논지가 흩어지면서 상대가 공략할 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포맷은 유지되었다. 그래서 승부가 걸려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하수들이 마지막 토론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꼭 필요해 보였다. 세대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사회문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때, 하수들의 패배는 시청자들에게 ‘앞으로 더 노력해라’라는 메시지로 전환된다. 그런 이유로 “진중권 편”에서 하수들의 승리는 크게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그건 누구보다 프로그램과 제작진에게 필요한 결말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좀 더 시청자들과 프로그램 사이 신뢰를 구축하고 제작진의 노고를 그런 장면은 화면 뒤로 넣어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앞서 말했다시피 ‘방송용 보수’와 같은 은어가 난무하는 텔레비전 세계다. 차라리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공정과 객관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승패를 가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청년과 기성세대가 힘을 합할 수도 있다. 오히려 청년과 청년이 때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사람 이름이 적힌 도장 현판은 없다.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걸려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다시 토론의 장이 열리는 상상을 해보자. 거기선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분명 소수 의견도 등장할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조차도 이런 환경에서라면 토론자들은 그 지점부터 다시 새로운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주장에 갇혀 자신에게 이로운 내용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형식적인 토론 구조에서 벗어남으로 변화가 가능해진다.

물론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지난 과거에서 현재의 답을 구하기도 한다. 거기서 만약이란 가정은 다시 힘을 얻는다.

## 더 깊은 대화의 장을 꿈꾸며

고수들은 앞서 토론 장소로 카페, 체육관, 결혼식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골랐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수들의 이름 현판이 걸린 도장 세트가 설치 되면서 시청자들은 그 장소가 원래 어떤 공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채 드러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볼 가치가 있다.

카페란 어떤 공간인가. 모두에게 허락된 사색과 대화와 작업의 공간이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독점, 공정무역, 최저임금,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시사 쟁점이 살아 움직이는 장소다. 경기가 진행되는 체육관은 고수 이준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정한 룰을 가지고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에 따르면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맺은 계약이다. 법은 국가가 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사회라는 체육관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식장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인간이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결혼식장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면 그 힌트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롤러스케이트장은 1980

년대 청년들의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많이 잃었다. 486 세대들의 이유와 책임과 역할을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에 꽤 적합한 공간이었을지 모른다.

도장을 설치하는 장면은 화마다 나오는데 이는 오히려 공간에 축적되어 있는 역사와 의미를 담지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토론대첩〉을 만나길 소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열린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싶다. 세대 간의 대화를 열겠다는 취지 하나로 자신을 토로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름 모를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자리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들은 때로 예리할 수도 연약할 수도 있다. 고수들이 이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공격을 더 깊은 사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논의를 이끌고 잘 알지 못하는 지점을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주었다면 어땠을까. 거기서 시청자들은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뒤, 자영업자들은 화를 냈고 청년들은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 그들은 ‘우리끼리’ 싸움 문제가 아니라며 사안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합치기도 했다. 이미 시청자들은 성장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는 자들을 넘어 정말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온갖 인문학, 철학, 토론 등의 소재가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추세도 그 증거가 아닐까 싶다. 텔레비전이 사람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왜 아픈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말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텔레비전은 다양성을 양분 삼아 발전하고 생존한다. 사안의 절박함마저 쓸 만한 것인지 아닌지 계산된다. 사용된 이슈는 다시 사회로 던져져 방치된다. 그것은 그저 소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란 방식은 텔레비전과 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주체성을 잃지 않고 타자화되지 않으면서 전달될 수 있는 포맷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매체가 발전을 거듭하는 사이 텔레비전은 자신의 위치를 삶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고 쉰다. 사회를 논하는 이들의 대화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소재로 사용되고 버려졌던 수많은 이슈가 다시 야기될 가능성을 가진다. 어쩌면 희망은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결국 텔레비전의 앞이든 뒤든 그 자리엔 모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존재할 테니.